문제 스스로 꼬리 내리게 하기

(역대하 30:1~27)

1.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2.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3.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수 없었음이라
4.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5.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문제 스스로 꼬리 내리게 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문제 스스로 꼬리 내리게 하기'

여러분께서 지금 어렵고 골치 아픈 상황에 당면해 있으십니까? 혹은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상황을 개선시키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인들의 대처방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문제 스스로가 알아서 꼬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선책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문제들은 더욱 더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문제에 골몰해서는 안 되고 문제의 답을 찾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에 직면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과도 같습니다. 왕자 에드워드가 자신과 한날 한 시에 태어난 똑같이 생긴 거지 톰과 우여곡절 끝에 옷을 바꿔 입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지 취급을 받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은 자기를 잃음으로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를 압박할 때에 거지 행색을 한 왕자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제나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문제 결혼문제 직장문제 부모자식간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아기출생률이 40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1980년대 말에 비하면 절반의 수치입니다. 결혼은 28만 쌍이 했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대통령과 측근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직장이 없으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대학생 졸업자의 70% 이상은 이미 졸업 전에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0%가 비정규직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최순실게이트를 빼놓고서라도 지금 상황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인은 정권만 원망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50만 명이 사십년을 사막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스스로 꼬리를 내리는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거지 신세가 된 에드워드가 왕자의 신분을 되찾을 때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도 나를 압도하지 못하는 최고의 나를 찾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나를 찾아야 합니다.
꿈틀거리는 애벌레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앞에 돌멩이를 놓아두면 태산 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나비가 된다면 이 돌멩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우리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계기로 삼아서 최고의 나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고 해도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애벌레가 돌멩이를 겨우 넘어가도 또 다른 돌멩이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비가 되면 돌멩이가 아닌 바위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집중해서 최고의 나를 찾아낸다면, 그 어떤 문제도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의 데일리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죄제로 마음의 더러움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번제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려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속죄제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와 화목제를 지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모여서 하는 것은, 전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백성들도 매일매일 성전을 생활화하며 살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워크숍 시간이었습니다. 전국가적 워크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준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남 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 왕국 지역에까지 전령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내자고 합니다. 전령들이

이동하는 시간까지 생각하여 본래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 달을 늦춰서 진행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북 왕국에까지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6년 후에(BC.722년) 북 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앗수르의 강제이주정책에 의해서 선민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짐으로 인해서 북 왕국에 잔존하고 있던 선민들을 끌어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앗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선민의 반쪽은 사라졌고 나머지 반쪽만 남았는데 이 반쪽도 언제 같은 운명을 걷게 될지 모르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불안한 상태로 왕으로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왕은 국방이나 외교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국내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부국강병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민족의 정체성과 그 민족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찾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갈라진 북 왕국에 속했던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우리가 누구며 그에 속한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을 찾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잇는 남 왕국 유다조차도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난제의 위기에 봉착해있지만 유월절을 지킴으로서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월절에 이어서 나타났던 출애굽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꼬리 내리게 하는 최고의 나를 찾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던 애굽에 벌을 내리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집안의 장자와 심지어 가축의 초태생이 죽는 흑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일 년 된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은 이 사망의 사자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逾越節)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 속에 최고의 나를 찾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자체로서 나인데 최고의 나는 누구이고 2등이나 3등짜리 나도 있느냐는 것인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은 관계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에 대한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은 여타 강남 아줌마들이 자식들에게 가지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에 의해 일어난 치맛바람은 국가권력 전체를 움직여버립니다. 이화여대의 총장과 학장과 입학규정까지 바꾸면서 딸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최순실에게 이러한 힘이 생긴 이유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박근혜 대통

령이 첫 번째 상대자가 되면서 최순실은 최고의 나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정수석 경제수석 등 모든 수석들이 그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국가 전체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첫 번째 상대자로 삼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규정됩니다. 내 자식이 첫 번째 상대인데 그 자식이 학교에서 꼴등이라면 나도 꼴등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인 자식이 나를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통령이면 자연히 퍼스트레이디가 됩니다.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장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첫 번째 상대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서 마음의 첫 번째 상대자를 찾고 자기를 규정합니다. 돈이 첫 번째 상대자라면 돈이 많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못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못난 사람이 되다보니 조그마한 돈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첫 번째 상대를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택하는데 이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동안은 선민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의 첫 번째 상대자를 세상에서 찾았기 때문에 문제와 상황들에 짓눌려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어린양이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상을 첫 번째 상대자로 규정했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선민으로 각자가 하나님만을 첫 번째 상대자로 삼아서 최고의 나를 찾고 나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이신 하나님을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첫 번째 상대자로 모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는 말씀에서처럼 즐거움과 기쁨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상대자가 되고 그로 인해 나를 찾으면 이 기쁨 속에서 이 세상의 상황과 문제들은 꼬리를 내리고 사라집니다.
물론 최순실이 대통령의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선민은 그런 권력의 남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움이 지속되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내가 소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꼬리를 내린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 당신의 뜻을 진행시키시고 필요에 따라 당기실 것은 당기시고 밀치실 것은 밀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돈 문제가 있으면 시간을 내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유월절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상대자로 하는 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상대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은 이 세상 것을 첫 번째로 담고 소원하며 살았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유월절이 재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자는 곧 이 세상에서 나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것을 첫 번째로 담고 살았던 내가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이신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서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첫 번째 상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대자로 규정받는 증거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다보면 어느덧 돈 문제도 꼬리를 내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고, 이럴 때에 돈에 관한 영역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불편함이 있지만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첫 번째 상대자로 삼는 최고의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문제도 내 앞에서 꼬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나를 저항하지 못할 것인데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을 첫 번째 상대자로 삼은 내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내 마음도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 상대자로 모시며 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고 이 세상 문제들은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자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 살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잘못하더라도 우리는 정권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져라. 나를 통해서 최고의 너를 찾으라.'고 허락받은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유월절을 날마다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을 첫 번째 상대자로 하는 최고의 나를 찾아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내 앞에서는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는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